

**2021년 8월 22일 “성경의 큰 숲 보기(43) 로마서: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
(롬 1:16-17, 5:8, 8:1-2)**

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신(로마서)을 보냈습니다.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확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에도 기독교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는 유익합니다.

[1] 로마서 전반부 핵심(교리)

바울의 서신서들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. 전반부는 서론과 기독교 원리(교리)편, 후반부는 성도의 삶의 실천편입니다. 로마서 또한 1-8 장(9-11 장) 교리편과 12-16 장 실천편으로 나뉩니다. 먼저, 바울은 서론에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.

1:16-17 ‘...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..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인데,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’

‘하나님의 의’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(사랑과 은혜)을 다해 약속하신 뜻을 성취(구원)하신 속성입니다. 이제 1:18~8 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 그분 뜻을 성취했는지 말합니다.

(1) 1:18~3:20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 갇혀 있다.

바울의 지적: 유대인의 착각은 율법을 알고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줄 알았고, 못 지키는 자들을 정죄했다.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. 주로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여 죄값을 적용시키는 도구이다.

(2) 3:21~4 장 죄의 세력에서 구출 받는 길은 하나님 의를 드러낸 예수를 믿음으로써. 3:23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(기준)에 못 이르는데,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열린다.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제물로 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. 이 길이 율법을 능가하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율법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(구원)을 받았기 때문이다.

(3) 5 장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함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성립.

이것은 죄인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가능해진 일이다(5:8).

(4) 6 장 예수님의 부활생명을 받은 자로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.

죄를 지어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욱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한다.

(5) 7 장 그러나 믿는 자 또한 육신의 습성으로 곤고하다.

육신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을 거스른다.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!

(6) 8 장 - 예수님은 정죄 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신다.

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. 성령께서는 성도를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로 이끄신다. 이 사랑은 어떤 이유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.

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말한 기독교 핵심의 흐름입니다.

[2] 로마서 후반부 핵심(삶의 실천적 측면)

12-16 장까지는,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입각하여 어떤 삶의 방식과 특징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.

12:1-2 성도의 삶을 요약 - '몸'을 산제물로 드리라(영적예배)고 하며, 이 예배는 삶으로 확장된 의미를 말씀합니다.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12:3 이하부터 하나님 뜻을 분별한 삶을 말합니다.

- (1) 12:3-8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로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역할을 감당하라.
- (2) 12:9~13 장 사랑으로 섬기고 한 마음이 되고 교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등... 사랑과 화평을 강조. 선으로 악을 이기라(사랑으로 승리하라는 뜻).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모든 계명은 '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'에 요약되어 있다.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!(13:10) → 사랑
- (3) 14 장 약한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.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구나 자기 일을 사실대로 아뢰고 평가를 받으므로 사람이 사람의 비판/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.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→ 믿음
- (4) 15 장 덕을 세우라. 덕을 세우는 데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. 인내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.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(5:3-4)고 말씀했고 15:13 에서 소망을 강조함.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목표를 갖게 한다 → 소망
- (5) 15:22~16 장 바울의 로마 방문 희망을 표하고, 16 장 인사말로 맺음.

후반부에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예배를 설명해주었습니다.

복음의 핵심에는 정죄 없는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고 회복과 영광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붙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.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것이 큰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<생각해봅시다>

- 1.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 요약을 살펴보면서 내용의 흐름을 되짚어 봅시다. 어떤 부분이 내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나요?
- 2. 8:1-2 정죄 없는 생명의 사랑의 법에 잘 지배 받고 있습니까? 그렇다면 나는 12~16 장에서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 받고 있습니까?